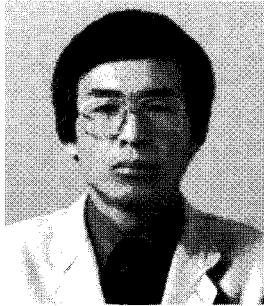


금불초



정연권
구례군농촌지도소

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을 향해 금빛 찬란히 피어나는 꽃은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부처님을 접하는 것같이 모든 번뇌를 벗어버린 평화로움을 준다.

금 불 초 (*Inula britannica* var. *chinensis* REGEL)는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초로 절화, 분화, 화단(꽃길)용으로 적합하며 식용과 약용으로도 사용된다.

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을 향해 금빛 찬란히 피어나는 꽃은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부처님을 접하는 것같이 모든 번뇌를 벗어버린 평화로움을 준다.

내한성 및 내서, 내진성이 강

하여 고온다습한 우리나라 여름에 적합한 자생화로 생각된다.

1. 형태와 특성

약간 습지에 자생하고 초장은 30~50cm로 곧게 자란다. 가지는 거의 치지 않으며 잎은 호생한다. 장타원형 잎가에 톱니가 있고 길이 5~10cm, 나비 1~3cm이다. 엽병은 없거나 원줄기를 감싸며 양면에 잔털이 있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다.

꽃은 밝은 황색으로 7~9월에 피는데 크기는 지름 3~4cm정도이다(사진1). 가지끝과 원줄기끝에 산방상으로 2~8개씩 위를 보고 피어 여름 태양빛에 눈부시게 한다. 뿌리는 지하경이 강하게 옆으로 뻗어가면서 증식되고 숙근성이다.

종자는 새의 깃털같이 털이 나있고(사진2) 판모길이는 5mm정도의 회갈색이며 종자는 1mm정도의 미립이다.

단일성 식물이고 생육적온은 20~30℃이다. 30℃이상에서도 정상적으로 생육개화해 여름 꽃으로 적합하다.

2. 성분 및 약효

금불초에는 시네올(Cineol)과 이눌린(Inulin)

사진1. 7~9월에 밝은 노란색으로 피는 금불초 꽃



사진2. 금불초 종자



이 함유되어 있다. 속명의 inula는 라틴어의 inaein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“맑게하다”는 뜻을 가지고 있다.

생약명으로 금불화(金沸花), 황숙화(黃熟花)라고 하며 진해, 거담, 건위, 이뇨 등에 효능이 있다. 꽃이 한창 필 때 채취하여 음건하거나 가볍게 볶아서 사용한다.

어린순은 국거리로 이용하는데 맵고 쓴 맛이 강하므로 물에 데친후 하루정도 우려낸 다음에 먹도록 한다.

금불초 유사종은 표1과 같이 3종류가 자생하고 있다.

3. 번식

실생

대량번식에 적합한 방법이다. 사진2와 같이 채종

한 종자를 건조저장후 3월 중, 하순경에 파종한다.

파종상은 발효5:부엽3:모래2의 용토나 수태를 잘게 썰어 사용한다. 미립종자이므로 복토하지 않는데 상면이 마르지 않도록 PE필름으로 밀폐상을 만든다. 저면관수하고 발아적온인 20~23℃를 유지시킨다.

발아에는 4주정도 소요되는데 본엽 3~4매가 되면 본포에 정식토록 한다(사진 3).

삼목

5월중순경 새순을 이용하는데 초장이 20cm정도 될때 정아를 삽수로 채취한다. 삽수길이는 6~7cm가 적당하고 기부 3~4cm에 잎은 제거하고 끝을 45°로 예리한 칼로 다듬는다. 잎이 클 때는 잎이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 농정도 자르는 것이 좋다. 깨끗한 모래에 2×5cm간격으로 충분히 관수하고 30% 차광망을 설치한다. 약10일 정도 지나서 캐 루스가 형성되면 차광망은 제거한다. 3일에 1회 간격으로 관수하면 약 25~30일 정도면 사진 4처럼 발근하게 된다.

사진3. 정식적기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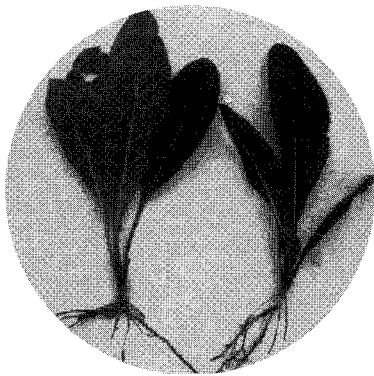


사진4. 삼목 발근한 묘



분주

분주는 3~4월경 새순이 돋거나 10월하순경에 하는데 3~4년에 한번씩 한다. 금불초는 근경이 뻗어서도 번식하는데 7~8월에 포기근처에서 뻗어나온 작은 주를 뽑아 심어도 잘 산다. 이 근경은 보통 30~40cm까지 뻗어간다.

4. 절화재배

7~8월 꽃가격이 비교적 낮을 때 출하되지만 8하~9월은 꽃가격이 좋은편이므로 스프레이

표1. 금불초 유사종의 주요특징

유사종	개화기	특 징
가는 금불초	6~8	다습한 개울 근처 자생. 일선형. 초장 30~70cm
가지 금불초	7~9	가지가 많이 갈라짐. 초장 100cm
버들 금불초	6~8	햇볕이 잘 쬐는 산기슭 자생. 초장 60~80cm

하국을 대용할 수 있다. 또한 노지에서 재배해도 병해가 적으니 경영상 유리하다. 재배작형은 그림1과 같다.

재배적기는 약간 습기가 있는 사양토나 식양토가 좋다. 10a 당 퇴비를 3,000kg이상, 계분 200, 복합비료(18-18-18)100kg을 넣고 잘 경운후 폭90cm, 높이20cm 정도의 두둑을 만든다.

실생이나 삼목된 묘를 사용한 것이 좋는데 정식은 그림2와 같이 20×30cm(4조식)이나 30×25cm(3조식)으로 심는데 4조식은 7,200주, 3조식은 6,500주가 소요된다. 정식후 충분히 관수하고 왕겨나 톱밥으로 멀칭하여 잡초와 건조방지는 물론 흙퇴김을 막도록 한다. 초장 30cm정도가 되면 10×10cm로 그물을 쳐 쓰러짐을 막도록 한다.

추비는 7월 하순경에 N.K복비를 10a당 15kg 정도 주고 점적관수(분수호스)시설을 하는 것이 좋다. 절화는 50~60cm로 꽃가위로 잘라서 하는데 끈 시들어 버리므로 즉시 물올림 작업을 하고 끝을 지져 프라스틱 물통에 넣어서 출하하거나 꽃끝에 피클(물주머니)를 장착후 출하하면 신선한 꽃을 오래 볼 수 있다. 10분을 1속으로 결속하여 출하하는데 절화수명은 대체로 10여일 정도이다.

5. 화단(꽃길)재배

금볼초의 특성을 잘 살리는 재배법으로 생각된다. 숙근초이므로 꽃길을 조성하면 조성비와 노력을 줄일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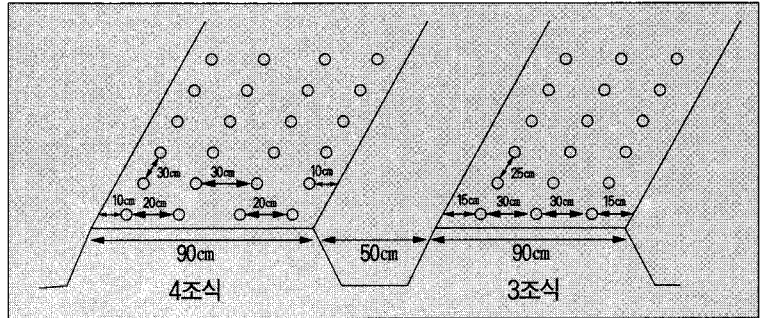
화단에 심을 때는 30×30cm로 원형, 타원형등 집단으로 심고 꽃길로 2조식(30×20cm)하는 것이 좋다. 물과 비료는 최대한 억제하여 키가 너무 크

그림1. 재배작형

	3	4	5	6	7	8	9
실 생	○	○	△	#	#	■	■

● 새순발아 ○ 파종 □ 삼목 # 네트 ■ 절화

그림2. 정식방법



지 않도록 한다.

6. 화분재배

플라워 박스에 심는 것이 무난하다. 화분용토는 발효4:부엽3:마사3의 비율로 배합하여 박스에 8할 정도만 채워서 물을 준후 완전히 빠진 다음에 심는다. 심는 간격은 20cm가 적당하고 초장 10cm에서 1차 적심하고 새순이 다시 15cm정도 자랐을때 2차 적심하면 초장을 30cm이내로 만들 수 있다.

관수는 3~4일에 1회씩 하는데 물이 너무 많지 않도록 한다. 추비는 가급적 억제한다. 플라워 박스 1개만 심는것 보다 집단으로 심는 것이 한층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 있다.

꽃이 지면 꽃대를 자르고 가는 모래나 왕겨로 피복한후 흙이 마르지 않도록 가끔씩 관수한다.

분갈이는 3~4년에 1회씩 하는데 3월에 하는 것이 좋다. **농약정보**